

현대 중앙아시아의 이슬람 정치세력화:

타지키스탄 내전과 러시아-우즈베키스탄 관계*

이 문 영**

I. 머리말

1991년 소연방의 해체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으로 대표되는 중앙아시아 5개국에 국가적, 민족적 정체성의 재확립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부여하였다. 이것은 수세기에 걸친 러시아제국의 식민통치와 70여년의 세월 동안 형성된 소비에트화(Sovietification)의 유산의 청산, 독립국가에 준하는 자율적인 정치, 경제, 사회구조의 확립, 고유한 민족적, 문화적 전통의 회복을 의미한다. 독립 후 십여 년이 흐른 지금, 이러한 과제의 해결양상과 그 과정은 각국의 특수한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주목할만한 점은 해당지역 국가들의 자기정체성의 확립 과정에서 이슬람이 강력한 대안이념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독립 후 중앙아시아 5개국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강력한 이슬람 부흥운동이나,¹⁾ 개혁과 구조조정 과정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한 정치세력화된 이슬람의 존재는 이를 입증해준다. 특히 후자의 경우, 종교와 신앙의 체계로서의 이슬람이 러시아와 소련의 지배에도 불구하고 중앙아시아에 지속적으로 존재해왔던데 반해, 적어도 독립 이전까지 해당지역에서 이슬람의 정치적 역할은 매

* 이 연구는 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KRF-2002-072-BS2071)

**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연구조교수

1) 이슬람 부흥운동은 중앙아시아 5개국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사원 수의 폭발적 증가를 비롯하여 종교적 활동과 조직결성의 합법화, 종교적 축일의 기념 허가와 공휴일 지정, 이슬람교리와 아랍어 학습 열풍 등의 현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A. V. Malashenko(1994) "Islam and Politics in the Southern Zone of the Former USSR", *Central Asia and Transcaucasia: Ethnicity and Conflict*. Westport: Greenwood Press, pp. 110-116 참조.

우 제한적이었다²⁾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매우 의미심장한 변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슬람의 정치세력화는, 해당지역에서 이슬람이 단지 종교적 차원에 국한되지 않고,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의 각 분야와 구조적으로 연관되어 새로운 사회관계 창출을 위한 이념적 토대가 되어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현대 중앙아시아에서 이슬람이 가지는 이러한 특권적 지위는 무엇보다 해당지역의 극심한 정치적, 경제적, 이념적 위기와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 실제로 소련의 지배질서를 대신할 만한 확고한 대안질서가 부재한 상태에서 갑자기 맞이하게 된 자유와 독립은 사회정치적 혼란과 이념적 공백, 도덕적 가치기준의 붕괴를 초래하였고,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열쇠를 중앙아시아인들은 자신들의 전통적 신앙이자 정체성의 뿌리인 이슬람에서 찾으려 한 것이다. 제정 러시아 말기 활발히 전개되었던 다양한 저항운동이 모두 이슬람이라는 이름 하에 진행되었던 것처럼, 이슬람은, 소련의 의도적인 민족분할과 언어의 이질화에 의해, 초기의 투르크족이라는 민족적 일체성과 투르크어라는 언어적 동질성을 상실한 채 반목하고 있는 중앙아시아인을 결속시켜줄 수 있는 유일한 고리로 여겨졌던 것이다. 동시에 이것은 소련의 지배 하에 왜곡되고 억압된 민족문화의 회복과정이기도 하다. 다른 한편으로 독립 후 심각하게 악화된 해당지역의 경제상황은 '위대한 예언자 마호메트와 4대 정통 칼리프 시절의 공정한 경제적 질서의 구현'³⁾을 약속하는 이슬람 속에서 위안과 희망을 가지게 하였다.

그러나 해당지역에서의 이슬람의 이와 같은 순기능과 함께 반드시 지적되어야 할 사실은, 중앙아시아에서의 이슬람 정치세력화의 과정과 결과가 다양한 이익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용되거나, 사회적으로 누적된 모순을 은폐

2) 예를 들어 중앙아시아 연구자인 A. 마트베예바는 이슬람 정치운동이 처음 발생한 것은 1990년대 초기였다고 주장한다. A. Matveeva, "The Islamist Challenge in Post-Soviet Eurasia", *Central Asia and the Caucasus*, <http://www.ca-c.org/dataeng/04.matveeva.shtml>, 검색일:2002.11.12), p. 2. A. 말라헨코 역시 조직화된 정치세력으로서의 이슬람운동은 타지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존재했던 이슬람 반대그룹의 제한적 활동을 제외하고, 페레스트로이카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슬람의 정치적 움직임은 1990년대 초반부터 본격화되었다고 말했다. A. Malashenko(1994), p. 116.

3) S. T. Hunter(2001) "Religion, Politics and Security in Central Asia," *SAIS Review* 21(2), p. 8.

또는 심화시키는 것으로 왜곡되는 경우가 빈발하였다는 점이다. 그 결과 이슬람은 집권세력이 정치적 반대세력을 억압하는 구실로 이용되거나, 정통성을 결여한 정권에 대한 폭력적 도전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왜곡되기도 하는 등, 중앙아시아 국가의 국내 정치의 위기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중앙아시아에서 활발한 정치활동을 보이는 이슬람 정당의 많은 수가 이슬람 원리주의를 그 근본이념으로 삼고 있다는 점, 그 이론이 역사적으로 중동의 아랍 무슬림 국가나, 이란,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이슬람 원리주의 국가로부터 수입된 것이라는 점, 그리고 중앙아시아가 이 나라들과 지리적으로 매우 인접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앙아시아의 이슬람 정치세력은 과격한 폭력이나 테러로 우려의 대상이 되는 극단적인 이슬람주의자들의 영향력에 항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이를 둘러싼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의 반목과 갈등은 지역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특히 이것이 소비에트 통치의 결과 중앙아시아에 구조화된 인종적, 영토적 분쟁요소와 결합될 경우 그 위험성은 더욱 증폭될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상황은 9.11 테러, 미국의 아프간 공격, 이라크 전쟁 등 최근의 세계정세와 관련되어 국제정치 차원에서 다양한 분쟁과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다.

이상과 같이 중앙아시아에서의 이슬람 정치세력화는 그 긍정적인 가능성과 함께 치명적인 위험성을 함께 내재하고 있는 ‘양날의 칼’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런 의미에서 타지키스탄 내전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타지키스탄 내전은 이슬람 정당의 정치적인 성공이 유혈분쟁을 통해 실현됨으로써, 이슬람 정치세력화의 가능성과 그 한계를 가장 극적인 형태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타지키스탄 내전의 발생 배경과 그 전개과정, 내전 종식 후 타지키스탄이 직면한 현실은 중앙아시아 전체의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문제와 미래의 과제를 집약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조차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논문은 타지키스탄 내전의 발생과 전개과정을 살펴본 후, 타지키스탄에서의 이슬람 정치세력화의 본질과 한계를 해당국 내의 역사적 모순이나 사회문제들, 그 이념적 배경이 되는 이슬람 원리주의와의 관련 속에서 고찰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이들이 야기하는 지역적, 국제적 차원의 문제를 우즈베키스탄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통해 살펴볼 것이다.

II. 타지키스탄 내전의 발생과 전개과정

1991년 9월 독립을 맞은 후 9개월 만에 발생한 타지키스탄 내전은 96년의 휴전 협정과 97년의 평화조약 체결에 이르기까지 약 5만의 사상자와 100만 이상의 난민을 발생시킨 비극적인 사건이었다. 내전의 두 당사자는 타지키스탄 북부 후잔트와 남부 쿨랍 지역을 근거지로 하는 친공산 보수세력과 이에 반대하는 개혁연합세력(The United Tajik Opposition — 이하 UTO)이다. 이 개혁연합세력을 주도한 것은 ‘타지키스탄 이슬람 부흥당’(Islamic Renaissance Party of Tajikistan)이며, 이 연합세력은 작가나 지식인 중심의 ‘라스토헤즈 민중전선’(Rastokhez Popular Front)과 같은 민족주의 계열, ‘타지키스탄 민주당’(Democratic Party of Tajikistan)과 같은 민주주의 그룹은 물론이고, 사업가와 상인들로 이루어져 시장 경제로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한 ‘민중연합전선’(Popular Unity Front)으로부터, 특정지역의 발전과 분리독립을 목적으로 하는 자치주의자 그룹(La’li Badakhshon)까지 매우 다양한 정치적 이념과 입장을 지닌 집단을 광범위하게 포함하였다.⁴⁾

이러한 광범위한 연합은 개혁의 필연성에 대한 대중적 공감을 입증하는 것이며, 이들은 공산집권 세력이 상징하는 구시대적 유물을 청산하고, 독립 후 새로이 출발하는 조국 타지키스탄에 진정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였다. 이들이 내세운 가장 주된 슬로건은 개혁세력에 대한 탄압 반대, 타지어와 이슬람으로 대표되는 전통문화의 보호, 그리고 대통령의 직접 선거였다. 그러나 1991년 11월 치러진 선거에서 ‘타지키스탄 공산당’(Communist Party of Tajikistan)의 제1서기장이었던 R. 나비예프(Nabiev)가 58%의 득표율로 당선된다. 반대세력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재선거를 요구하지만, 나비예프는 이를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혁세력에 우호적인 듀산베 시장과 시의회 의원들, 그리고 라스토헤즈당과 타지 민주당 당수를 부패혐의로 체포한다. 1992년 3월에 벌어진 이 사건으로 타지키스탄 전국은 대규모 항의시위에 휩싸이고, 이 과정에서 5월 6일 처음으로 폭력사태가 발생하여 3명이 숨지고 11명이 부상을 입게 되며, 그 다음날 나비예프의 친위대라

4) 타지키스탄 내 정치그룹에 대해서는 B. R. Rubin(1994) "Tajikistan: From Soviet Republic to Russian-Uzbek Protectorate", *Central Asia and the World*, New York:Council of Foreign Relations Press, p. 213; A. Rashid(1994) *The Resurgence of Central Asia*, London:Oxford Univ. Press, p. 174 참조.

할 수 있는 국가 수비대(National Guard)와 무장한 반군세력간의 무력충돌이 발생한다. 이러한 무력충돌은 중앙아시아 이웃나라와 러시아의 우려를 낳아 CIS 평화유지군 러시아 사령관으로 타지키스탄에 머물던 V. 자볼로트스니(Zabolotnyi)의 중재로 나비예프와 UTO는 ‘국가 화해를 위한 연립정부’(Coalition Government of National Reconciliation-이하 GNR) 구성에 합의한다. 이 합의에 의해 이슬람 부흥당 부의장인 D. 우스만(Usman)이 부수상에 임명되고 내각 각료 구성의 1/3이 UTO 쪽에 할당된다.

그러나 이러한 협상 결과에도 불구하고 나비예프의 완전사임을 요구하는 반대세력과, 분리 독립을 불사하겠다는 후잔트-쿨랍의 나비예프 지지자들간의 폭력은 계속되었다. 그 결과 6월에는 무장한 쿨랍 공산주의자들이 개혁세력을 지지하는 쿠르간-튜베를 공격해서 적어도 100명이 사망하고 수천의 튜베인이 난민화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개혁 무장 세력에 의해 결국 9월 나비예프가 사임하게 된다. 곧 이어 개혁파 A. 이스칸다로프가 이끄는 임시정부가 구성되지만, 1992년 10월 쿨랍의 무장세력에 의한 쿠데타로 이스칸다로프 내각이 사임하고, 친공산주의자들이 득세하는 후잔트 의회에서 일방적으로 쿨랍 출신의 공산주의자인 I. 라흐모노프(Rakhmonov)가 새로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한편 수도 듀산베에서는 보수세력의 이러한 폭거에 맞서 반군세력이 저항하지만, 12월 주로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 군으로 이루어진 CIS군의 지원을 받은 후잔트-쿨랍 연합세력과 히사르군의 듀산베 공격으로 수도는 라흐모노프와 친공산 세력에 함락된다. 이러한 승리에도 불구하고 쿨랍 무장세력인 ‘타지키스탄 인민전선’(People’s Front of Tajikistan)의 지도자 S. 사파로프(Safarov)는 개혁 지지자들에 대해 끔찍한 보복살인과 처형을 자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슬람 부흥당의 리더인 M. S. 히마트자드(Himatzade)와 UTO의 핵심지도자인 A. 투라존-조다(Turadzhon-Zoda)는 물론이고, 수십만의 평범한 타지키스탄 시민들조차 아프가니스탄으로 탈출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많은 타지키인들이 희생되었다.⁵⁾

5) 타지키스탄 내전에 대해서는 A. Rashid(1994), pp. 172-184; B. R. Rubin(1994), pp. 213-216; A. Malashenko(1994), pp. 122-125; G. Gleason(2001) "Why Russia Is In Tajikistan", *Comparative Strategy*, Taylor&Francis, pp. 79-82; M. B. Olcott(1996) *Central Asia's New States*, Washington D. C.: US Institute of Peace Press, pp. 25-28; S. Olimova "Political Islam and Conflict in Tajikistan", *Central Asia and the Caucasus* (<http://www.ca-c.org/dataeng/11.olimova.shtml>, 검색일: 2004.03.17),

라흐모노프와 친공산세력의 승리로 내전 상황은 일시적인 소강 상태를 보이는 듯 하였지만, 라흐모노프 정권은 화해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 한편 아프가니스탄에 은신한 반군세력들은 한편으로는 아랍과 파키스탄의 이슬람 원리주의 세력으로부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프가니스탄의 무자헤딘 집단으로부터 물질적, 군사적 원조를 얻게 되고 이에 힘입어 1993년 봄부터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타지키스탄 공격을 감행한다. 특히 이 이웃나라들의 원조는 자신들과 원리주의 이론을 공유하는 이슬람 부흥당 지지자들 쪽에 주로 집중되었다. 그 군사적 공격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1993년 6월의 쿨랍 지역에 대한 보복공격으로 그 결과 200여명의 쿨랍 주민이 살해되었다. 또한 이들의 군사행동의 타겟은 내전에서 집권세력을 도왔던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 주도의 CIS군을 포함하기에 1993년 5월 이들은 스팅거 미사일로 우즈베키스탄에서 타지키스탄으로 이동하던 수호이-24 제트 전투병을 공격하였고, 앞서 언급한 6월의 쿨랍 공격에서는 25명의 러시아인 아프가니스탄-타지키스탄 국경수비대원이 사살되었다.⁶⁾

이에 러시아는 타지키스탄 주둔 평화유지군과 국경수비대를 강화하고, 1993년 8월 중앙아시아 국가 원수들과의 정상회담에서 타지키스탄 문제에 대한 중앙아시아와 러시아의 공동책임을 강조하였으며, UN에 타지키스탄 내전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중재를 요청한다. 1994년 UN은 UNMOT(UN Mission of Observers in Tajikistan) 본부를 두산베에 설립하며, UN과 러시아 등의 외교적 압력으로 결국 1995년 8월 라흐모노프 대통령과 UTO 의장인 S. A. 누리(Nuri) 사이에 국가 화해를 위한 의정서가 채택되고, 1996년 12월 모스크바에서 체르노미르딘 러시아 총리의 참석 하에, UTO 대표를 의장으로 하는 국가 화해 위원회(Commission on National Reconciliation-이하 CNR) 설립, 평화협상 중 완전 휴전, 조속한 시일 내 자유로운 국회의원 선거 실시, 난민 보호와 복귀 노력을 주 내용으로 하는 휴전협정이 이루어지고, 다음해 6월 평화협정이 체결되어 내전은 사실상 종결된다.⁷⁾

pp. 1-10; S. Gretskey "Russia's Policy toward Central Asia", *Central Asia and the Caucasus* (<http://www.ca-c.org/dataeng/GRETSKY.shtml>, 검색일:2004.03.17) pp. 4-13 참조.

6) 반군의 쿨랍과 CIS군 공격에 대해서는 B.R. Rubin(1994), p. 218 참조.

7) 소위 Intra-Tajik Talks라 불리워지는 이 평화협상 과정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G. Gleason(2001), p. 82; S. Gretskey, pp. 11-12 참조.

III. 타지키스탄 이슬람 정치세력화의 배경과 본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슬람 부흥당은 타지키스탄 내전의 발생과 그 전개 과정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으며, 다른 민주-민족주의 세력과의 연합을 주도하며 독립 후 타지키스탄의 정치구조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중앙아시아에서의 이슬람 정치세력화를 논할 때 타지키스탄이 그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빠짐없이 거론되는 것은 바로 이슬람 부흥당의 활약 때문이다.⁸⁾ 이들은 중앙아시아 최초로 합법화된 이슬람 정당이고, 비록 나비예프에게 결과적으로는 패배하였지만, 1991년 선거에서 무려 40%에 가까운 득표율을 얻어냈으며, 이러한 대중적 지지에 기반해 정부 구성(1992년의 GNR 구성)에 참여한 중앙아시아 최초의 이슬람 정당이기도 하다.

여기서 지적되어야 할 것은 타지키스탄에서의 이슬람 정치세력의 이와 같은 약진이 이 정당의 정치적 능력의 탁월함보다는 사회에 대한 대중의 누적된 불만에 의해 이미 준비되어진 것이라는 사실이다. 중앙아시아 전반에 걸친 이슬람 부흥 상황이 체제전환기의 위기의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은 이미 서론에서 지적한 바 있지만, 타지키스탄의 경우 소비에트 체제를 거쳐 역사적으로 구조화된 모순과 중첩된 사회문제들이 그 어느 나라보다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중앙아시아가 직면한 모든 문제들이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집약된 곳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⁹⁾ 정권의 정통성이나 그 독재적인

8) 1990년 6월 아스트라한에서 최초로 결성된 이슬람 부흥당은 사실 그 시작에는 중앙아시아 뿐 만이 아니라, 볼가-우랄 지역과 카프카즈를 포함하는 소련의 모든 무슬림 지역의 연합을 통해 전체 무슬림의 이해를 대변하는 초국가적, 초민족적 정당을 표방하였으나, 내부의 반목과 이견 조정의 실패로 인하여 점차 그 영향력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이 정당의 타지키스탄 지부라 할 수 있는 타지키스탄 이슬람 부흥당은 당시 집권세력인 공산정권의 방해와 탄압에도 불구하고 타지키스탄 내에서 주목할만한 활동을 전개하고 그 결과, 1991년 12월 합법적인 정당으로 정식 등록된다. 이슬람 부흥당에 대해서는 S. T. Hunter(2001), pp. 5-6; A. Malashenko(1994), pp. 118-122; S. Olimova, pp. 5-8 참조.

9) 소비에트의 중앙아시아 통치가 해당지역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주장하는 학자들도 존재한다. 이는 주로 러시아 연구자들에 의해 제기되는데, 소비에트 시기 실시된 산업화와 도시화가 중앙아시아의 근대적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특히 지역경제의 성장, 거의 100%에 달하는 문맹률의 퇴치, 공중보건의 향상, 여성의 지위 상승과 역할의 증가 등은 소비에트화의 부인할 수 없는 덕목으로 지적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그러한 산업화와 근대화의 초점이 지역발전이 아닌 러시아 중심주

통치방식에 대한 대내외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다른 중앙아시아 공화국들이 비교적 조용하고 매끄럽게 체제전환에 성공한 것에 비해, 유독 타지키스탄만이 독립 후 유혈분쟁의 진통을 겪어야만 했던 것은 여기에 기인한다. 이렇게 타지키스탄의 정치세력화된 이슬람에 대한 대중적 지지의 근원이면서, 내전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한 사회적 문제들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고찰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이다. 구소련 구성 지역 중 중앙아시아가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역이라는 점은 이견의 여지가 없지만, 그중에서도 타지키스탄은 1인당 국민소득이 가장 낮은 최빈국에 속한다.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의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가 천연가스나 석유 등의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이를 독립국가 건설의 강력한 경제적 토대로 활용하고 있는데 비해, 타지키스탄에는 석유도, 가스도 나오지 않으며, 국토의 93%가 파미르 고원으로 대표되는 산악지방에 속한다. 그나마 경작이 가능한 평야는 소비에트 시절 면화공급지로 특화되면서 토질 악화와 산성화로 필수 농작물의 경작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한편 수출의 86.5%, 수입의 83.6%를 차지했던 구소련과의 교역 비중이 독립 후 심각한 변화를 겪으면서 무역적자와 이에 따른 외부원조에 대한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다. 게다가 25.7%에 달하는 실업률, 연평균 5%에 이르는 높은 인구증가율로 인해 타지키스탄 경제는 매우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었다.¹⁰⁾

두 번째 요인은 타지키스탄 내의 지역과 종족에 따른 심각한 분열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것은 중앙아시아 전체의 민족적, 영토적 분쟁요소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타지키스탄의 경우 주민족인 타직인이 전체 인구구성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8.8%이며, 23%는 우즈베크인이, 11%는 러시아인이, 그 나머지를 카자흐인, 키르기즈인, 위그르인 등이 나누어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한 공화국 내에 중앙아시아 대표민족들과 러시아인이 혼재하는 양상은 단지 타지키스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중앙아시아 5개국에 공통적으로

의에 근거하였고, 이것이 지역 정치와 경제의 의존성과 기형성을 초래하였다는 점에 있어서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하겠다. 소비에트 통치의 긍정성에 대해서는 U. Kasenov(1998) "Post-Soviet Modernization in Central Asia: Realities and Prospects", *Central Asia: The Challenge of Independence*, New York: M.E.Sharpe, p. 29; A. Rashid(1994), p. 170 참조.

10) 타지키스탄의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A. Rashid(1994), pp. 170-171; 최한우(1997) 『중앙아시아학 입문』, 서울: 퍼네기, 423-427쪽 참조.

나타나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 카자흐스탄의 경우 해당지역 러시아인의 인구구성비율(38%)은 주민족인 카자흐인(40%)에 거의 필적하는 수준이며, 우즈베키스탄의 경우도 우즈베크인 외에 8.3%의 러시아인과 5%의 타직인을 주요인구구성성분으로 포함한다.¹¹⁾ 이러한 현상은 스탈린 시기 중앙아시아에 행해진 인위적인 민족분할과 자의적인 국경설정의 역사적 산물이다. 볼셰비키 혁명의 성공 후 중앙아시아 지역을 점령한 소비에트는 해당 지역에서 투르크 민족을 중심으로 하는 자민족 우선주의가 나타나는 것을 막고 공화국 내 동질성을 약화시키기 위해 국경을 인위적으로 조정해 동일 거주지역으로 묶여 있던 집단을 분산시키고, 의도적으로 러시아인을 포함한 다양한 민족구성으로 각 국을 출범시켰다.

타지키스탄은 이러한 소비에트 분할 통치 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희생양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 이것은 타지키스탄이 중앙아시아 5개국 중 유일하게 투르크 계열이 아닌 페르시아계 민족이라는 사실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페르시아 최초의 무슬림 왕조인 사만조는 기원상 타직인이며, 비록 사만조의 멸망 후 셀추크와 같은 투르크-이슬람 제국이나 몽고제국, 우즈베크 투르크의 지배 하에 차례로 놓이게 되지만, 타직인들은 페르시아 이슬람 문명에서 자신의 뿌리를 찾으며, 그 수도이자 이후 중앙아시아 이슬람 문명의 중심지였던 부하라와 사마르칸트에 대한 높은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다.¹²⁾ 그러나 1924년 소비에트는 타지키스탄을 자치공화국의 형식으로 우즈베키스탄에 합병시켰고, 1929년 타지키스탄을 연방공화국으로 승격시켜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 분리하는 과정에서 부하라와 사마르칸트를 우즈베키스탄의 영토로 남겨두는 반면, 역사적으로 우즈베키스탄에 속했던 후잔트 지역은 타지키스탄 영토에 남겨두게 된다. 그 결과 타지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양국에는 민족적 경계와 지리적 경계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소수민족문제 — 즉 타지키스탄의 우즈베크인 또는 우즈베키스탄의 타직인과 같은 — 와 영토를 둘러싼 분쟁이 다른 어떤 나라에서보다 더욱 첨예하게 제기되었고, 특히 타지키스탄의 경우 이것은 뒤따른 소비에트 정권의 불균형한 지역 발전 정책에 의해 더욱 심각하게 왜곡된다.

소비에트 시기 타지키스탄의 모든 정치적 권력과 경제적 혜택은 후잔트와

11) 타지키스탄과 중앙아시아 인구구성비율에 대해서는 A. Rashid(1994), p. 169; B. R. Rubin(1994), p. 210; S. Gretskey, p. 7; 최한우(1997), 330, 359쪽 참조.

12) 이에 대해서는 A. Rashid(1994), p. 166 참조.

히사르같은 타지키스탄 북부와 듀산베 서부 지역에 집중되었다. 이 지역의 공통성은 첫 번째로는 우즈베키스탄과 지리적으로 매우 인접하고, 두 번째로는 다수의 우즈베크인과 러시아인이 거주하는 매우 투르크화되고 친소비에트적인 산업 도시라는 점이다.¹³⁾ 이 지역에서는 우즈베크인과의 결혼이나 우즈베크어의 사용이 매우 일반화되어 우즈베크인과 타지인간의 동화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고, 이러한 지역적 특성이 민족적 차이를 제압하였다. 반면 주로 타지키스탄 남부나 동부 산악지방에 위치한 쿠르간-튜베나 고르노-바다흐손, गर름과 파미르 지역인들은 보다 순수한 의미의 타지키스탄 문화와 전통적 가치체제를 보존한 사람들이었고, 이 지역 엘리트들은 타지키스탄 권력 구조에서 전적으로 배제되었고, 경제적으로도 불이익을 받았다. 이러한 정치적, 경제적 소외는 친우즈베크적이고 친소비에트적 지역민들에 대한 반감, 그리고 이러한 불평등한 관계를 구조화한 공산집권세력에 대한 불만을 야기하였고, 이것이 이들을 개혁세력의 지지자로 만든 근본원인이었다. 1970년대 남부의 쿨랍이 후잔트와 동맹관계를 형성하면서 타지키스탄은 집권 보수 세력을 지지하는 후잔트-쿨랍 지역 對 그 반대 개혁 세력으로 날카롭게 양분되었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바로 이들이 내전의 두 당사자들이었다.

결국 소비에트의 민족분할정책과 그것이 야기한 타지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간의 해묵은 갈등, 즉 중앙아시아 내의 국가간 갈등과 민족간의 갈등은 타지키스탄 내부의 종족적 분열과 지역적 갈등으로 내면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으며, 이렇게 증첩된 모순이야말로 타지키스탄 내전 발생의 본질적인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극심한 경제적 빈곤, 국가적, 민족적 정체성의 확립을 방해하는 지역적, 종족적 분열 상황은 이슬람이라는 종교적 공통성 속에서 구소련의 통치를 대신할 만한 일체성을 구하게 한 것이고, 이것이 모든 개혁세력을 이슬람이라는 모토 아래 결집시킬 수 있었던 이유이자, 정치세력화된 타지키스탄 이슬람, 즉 이슬람 부흥당이 발휘했던 힘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13) 예를 들어 후잔트는 독립 전 레니나마드로 불렸던 대표적인 공업도시로, 31%에 달하는 우즈베크인과 수만의 러시아인 거주지역이었으며, 히사르의 경우 우즈베크인 비율은 무려 45%에 달했다. 특히 후잔트는 앞서 거론한 바 있듯이 과거 우즈베키스탄의 영토였다. 이에 대해서는 A. Rashid(1994), pp. 161-162; B. R. Rubin(1994), pp. 210-212 참조.

IV. 타지키스탄 이슬람 정치세력화와 이슬람 원리주의의 관계

이슬람 부흥당이 독립 후 타지키스탄 국내 정치에서 차지했던 비중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도한 위기의 해결과정이 민족간의 비극적인 유혈분쟁으로 귀착되었다는 사실은 그 정치적 한계를 보여주는 것임과 동시에 그 이념적 토대가 되었던 이슬람 원리주의의 위험성을 입증해주는 것이다. 주변 이슬람 국가로부터 수입된 이론이라 할 수 있는 이슬람 원리주의는 첫 번째로는 그 수용과정 자체가 앞서 설명한 타지키스탄의 역사적으로 중첩된 모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는 점에서, 두 번째로는 그 존재가 지역적, 국제적 차원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이슈가 되어 내전 이후 타지키스탄의 정치구조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사실 이슬람법(샤리아)에 근거한 이슬람 국가 건설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며, 이런 의미에서 이슬람과 정치의 결합을 그 본질로 삼을 수밖에 없는 이슬람 원리주의는 중앙아시아에 고유한 종교이론이라고 말할 수 없다. 타지키스탄을 포함한 중앙아시아인 대부분이 믿고 있는 이슬람 종파는 순니 계열의 하나피파와, 이슬람과 중앙아시아 토착신앙이 결합된 형태라고 말할 수 있는 수피즘으로, 전자는 세속적인 정치권력을 존중하고 이슬람의 정치개입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점에서, 후자는 특유의 신비주의적이고 반속세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이슬람의 정치세력화와는 거리가 멀다.¹⁴⁾ 따라서 중앙아시아에서의 이슬람 정치세력화 과정은 주변 이슬람 국가의 이슬람 원리주의 이론의 수입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으며,¹⁵⁾ 그 중에서도 1979년의 소련-아프

14) 하나피파와 수피즘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A. Rashid(1994), p. 246; J. O. Voll(1994) "Central Asia as a Part of the Modern Islamic World", *Central Asia in Historical Perspective*, Boulder: Westview Press, pp. 65-66; A. Rorlich(1991) "Islam and Atheism: Dynamic Tension in Soviet Central Asia", *Soviet Central Asia*, Boulder: Westview Press, pp. 201-203; 문명식(1998) 「구소련지역과 러시아에서 이슬람의 문제」, 『슬라브연구』 14, 307쪽 참조.

15) 자말루트 딘 아프가니의 범이슬람주의나 사우디 아라비아의 와하비즘, 인도의 네오 반디즘과 같은 이슬람 원리주의가 중앙아시아에 소개된 것은 이미 19세기부터 이고, 이 이론들이 당시 제정러시아의 지배에 대한 중앙아시아 무슬림 저항운동의 이념적 배경이 되었지만, 이 저항운동에서 강조된 것은 이슬람의 정치적 역할보다 계몽적 역할이었고, 그나마 뒤따른 소비에트의 철권통치에 의해 이러한 과정이 강제적으로 중단되었기에 이를 본격적인 의미에서의 이슬람 정치세력화로 보기는 힘

가니스탄 전쟁이 중앙아시아 전체, 특히 타지키스탄에 미친 영향은 엄청나다.

아프가니스탄이 타지키스탄에 대해 갖는 이러한 특별한 의미는 첫째로는 두 나라가 1206km의 국경을 두고 인접하고 있다는 지리적 요인과, 아프가니스탄에 거의 400만에 달하는 타지인이 거주하고 있다는 인종적 요인으로부터 출발한다. 이러한 원인으로 인하여 79년 전쟁시 타지인은 전쟁의 양측 모두가 가담하게 된다. 당시 타지키스탄은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의 기지역할을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수천의 타지키스탄 군인이 소련 측 군사로, 또는 통역가로 전쟁에 참여하였다. 한편 아프가니스탄 반군세력에 대한 파키스탄의 전폭적인 지원과 파병과정에서 수백의 타지인을 포함한 중앙아시아인이 반군세력으로 전쟁에 참여하였고, 이들은 아프가니스탄 국경과 인접한 파키스탄의 군사 캠프에서 군사적, 이념적 훈련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아프가니스탄 반군세력인 무자헤딘이 이념적 배경으로 삼은 와하비즘, 즉 혁명을 통한 이슬람 국가 수립이라는 원리주의 사상이 그들에게 전달되었다.

타지인이 아프가니스탄 무자헤딘에 보인 친화성에는 원리주의 이론에 대한 공감과 더불어 인종적 동질감이 큰 역할을 하였다. 당시 소련의 침략에 성공적으로 저항해온 무자헤딘의 주요 거점 중 하나가 아프가니스탄-타지인의 대다수가 거주하던 아프가니스탄 북부였고, 특히 이 북부지역의 반군 사령관이자, 나지볼라 공산 정권 타도 후 구성된 무자헤딘 정권에서 국방부 장관을 지낸 A. S. 마수드(Masoud) 역시 타지인이었다. 소련 지배 하에서 자신의 페르시아적 정체성의 뿌리라 할 수 있는 부하라와 사마르칸트를 잃은 상실감, 자신들이 우즈베키스탄으로 대표되는 투르크 주도의 중앙아시아의 변방에 불과하다는 소외감을 항상 가져온 타지인에게 이러한 사실은 커다란 자긍심과 위안이 되었다. 소련이 전쟁 6개월 만에 아프가니스탄의 소련 군대로부터 모든 타지인을 철수시켜버린 것도 아프가니스탄 무자헤딘과 타지인 사이의 이러한 이념적, 인종적, 정서적 유대를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¹⁶⁾

이렇게 79년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통해 전해진 이슬람 원리주의는 그 후 30년의 세월에 걸쳐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은밀히 타지키스탄을 포함한 중앙아시아에 깊숙이 퍼졌으며, 1990년대에 이르러 소연방의 해체와 독립이라는 자유로운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급속히 정치적 대안세력으로 부상하기 시작

들다.

16) 소련군의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의 타지인 철수에 대해서는 A. Rashid(1994), p. 172 참조.

한 것이다. 타지키스탄의 이슬람 정치세력화를 상징하는 이슬람 부흥당 역시 기본적으로 이슬람 원리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이슬람 부흥당은 적어도 내전 발생 전, 그 활동의 초기에는 어떠한 종류의 폭력이나 극단주의에도 반대하였다. 히마트자드나 우스만 같은 이슬람 부흥당 지도자들은 “원리주의란 **합법적인** 정치적인 투쟁을 통해 이슬람의 요구에 부응하는 삶을 창조하기 위한 무슬림의 희망에 바탕하고 있으며”,¹⁷⁾ “이슬람 부흥당의 목표는 법에 근거한 민주국가의 건설”¹⁸⁾임을 재차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슬람 원리주의는 그것이 아무리 온건한 형태를 취한다 할지라도, 한편으로는 그 이론적 동질성으로 인하여 보다 과격한 형태의 이슬람 원리주의와 언제든지 결합할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청년단원을 중심으로 한 급진적 당원을 항상 그 일부로 하기에 언제든지 과격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이슬람 부흥당 의장 히마트자드는 자신의 발언과 모순 되게 이미 내전 시작 전에 8천에 달하는 비밀 군사조직을 가지고 있었고, 내전 시기 반군 무장세력의 주축을 형성한 것이 바로 이들이었으며, 아울러 그는 아프가니스탄 무자헤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¹⁹⁾ 아프가니스탄의 타직 영웅인 마수드는 말할 것도 없고 무자헤딘의 또 다른 영웅이었던 G. 히크메티아(Hikmetyar) 역시 이슬람 부흥당에 군사적 원조를 아끼지 않았으며, 특히 그는 듀산베에 400명의 무장세력을 직접 가지고 있다고 알려졌다.²⁰⁾ 이슬람 부흥당과 무자헤딘 간의 이러한 유대는 특히 공산집권세력의 쿠데타와 뒤이은 보복공격으로 이슬람 부흥당과 반군세력이 아프가니스탄으로 대대적으로 탈출한 후 더 가속화되었다. 이슬람 부흥당 반군들은 히크메티아나 마수드의 지배 하에 놓여 있던 쿤드즈나 타하르와 같은 지역에서 그들의 보호와 지원 하에 젊은 타직인들에게 게릴라 군사 훈련과 이념교육을 실시한다.²¹⁾

이렇게 이슬람 원리주의라는 이념적 동질성과 부분적으로 인종적 친화성을 기반으로 한 아프가니스탄과 타지키스탄 이슬람 원리주의 세력간의 결합은

17) A. Malashenko(1994), p. 118.

18) S. Olimova, p. 7.

19) 히마트자드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A. Rashid(1994), pp. 159-160 참조.

20) 이에 대해서는 위의 책, p. 177참조. 특히 히마트자드의 별명이 ‘타지키스탄의 히크메티아’였다는 사실은 그와 무자헤딘간의 밀접한 관련을 시사한다.

21) 이슬람 부흥당과 무자헤딘 관계에 대한 더 자세한 것은 B. R. Rubin(1994), pp. 216-218 참조.

타지키스탄 내 분쟁의 폭력성과 과격성을 더욱 증폭시켰고 이것은 크게 세 가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 첫 번째로 국내정치 차원에서, 내전의 경험은 일반 대중에게 정치 세력화된 이슬람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주었다. 1997년 평화협정에 의해 차기 정부구성의 30%가 UTO에 할당됨으로써 이슬람 부흥당 지도자들이 부수상, 외무부 차관 등 행정부의 주요 요직에 임명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²²⁾ 이것은 이슬람 부흥당이 내전을 통한 권력 분배에 성공했음을 입증해주는 것이지만, 오히려 내전 종식 후 이슬람 부흥당에 대한 대중의 지지도는 현저하게 떨어진다. 내전 발생 전인 1991년 대선에서 이슬람 부흥당이 얻어냈던 40%에 가까운 대중적 지지는 1999년 1월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5%로 급락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유혈과 결합된 타지키스탄 이슬람 정당의 정치적 성공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이런 의미에서 한 연구자의 다음과 같은 지적은 매우 시사적이라 할 수 있다. “타지키스탄 내전은 중앙아시아 전체에 걸친 원리주의의 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사람들은 유혈의 책임을 그들에게 물었고, 많은 타지인들이 그들을 두려워한다. 타지인들은 고향을 떠나 내전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편을 택했다... 역설적이게도 이슬람 원리주의의 영향력이 가장 강했던 타지키스탄이 이슬람 원리주의의 제한된 가능성을 입증한 셈이다.”²³⁾

두 번째로 아프가니스탄과 타지키스탄 이슬람 원리주의의 결합과 그에 따른 과격화는 다른 중앙아시아 공화국 집권세력에게 유혈의 원인을 전적으로 이슬람 원리주의에 돌리는 명분을 만들어주었다. 그 결과 중앙아시아 내의 정치 세력화된 이슬람은 물론이고 모든 반대세력에 대한 탄압이 정당화되고, 이것이 다시 이슬람 세력의 과격화를 야기하는 악순환이 초래되었다. 특히 이러한 상황은 아프가니스탄에 탈레반 정권이 등장한 1996년부터 더욱 심각해진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슬람 원리주의의 폭력성에 대한 이러한 경계가 주변 국가들이 타지키스탄에 개입할 구실로 작용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중앙아시아의 새로운 강자가 되려는 우즈베키스탄과, 구소련 영토에 대한 책임과 권리를 주장하는 러시아간의 관계가 새로운 갈등요소로 등장하였다. 다시 말해 급진적 이슬람 원리주의에 기반한 타지키스탄의 이슬람 정치세력의 존재는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 양국이 타지키스탄의 내전과

22) 1997년 CNR 구성에 대해서는 S. Gretskey, p. 12 참조.

23) A. Malashenko(1994), pp. 123-124.

이후 내정에 깊숙이 개입할 수 있는 효과적인 명분이 되었고, 이것은 타지키스탄에 구조화된 소비에트적 유물, 우즈베키스탄과의 역사적 갈등구조와 긴밀하게 관련되어 타지키스탄의 개혁과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렇게 타지키스탄의 정치 세력화된 이슬람은 내전은 물론, 중앙아시아, 더 나아가서는 구소련지역의 지역안보와 국제 정치구조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으며,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의 독립된 장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V. 타지키스탄을 둘러싼 러시아-우즈베키스탄 관계

앞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내전을 야기한 타지키스탄 내의 사회적 모순들이 러시아가 주도했던 소비에트 시기의 직접적인 산물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그 모순이 우즈베키스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양국은 내전과 이미 발생론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적 연관관계로 인하여 양국이 타지키스탄 내전의 전개과정과 이후 정치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실로 엄청나다고 말할 수 있다. '내전 이후 타지키스탄과 러시아의 관계는 신식민주의와 다를 바 없다'거나,²⁴⁾ '타지키스탄은 사실상 우즈베키스탄의 식민지에 다름 아니다'라거나,²⁵⁾ '타지키스탄은 소비에트 공화국에서 러시아-우즈베키스탄의 보호령으로 변화하였을 뿐이다'라는²⁶⁾ 주장이 가능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 이처럼 양국이 타지키스탄 내전에 깊숙이 개입할 수 있는 표면적인 명분이 되어준 것은 앞장에서 간략히 밝힌 바와 같이 바로 정치 세력화된 이슬람 원리주의에 대한 경계와 그 위험성으로부터의 현지 자국민 보호, 그리고 그 영향력의 자국으로의 확산 차단이었다.

먼저 우즈베키스탄은 타지키스탄과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에트 통치의 결과, 타지키스탄 인구의 23%에 달하는 우즈베크인이 타지키스탄에 살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 내에도 수백만의 타지키인이 거주하고 있다. 또한 90년대 들어 주로 이슬람 원리주의에 기반한 이슬람 정치세력화가 타지키스탄에서만뿐 아니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으며, 특히 이러한 이슬람 운동이

24) S. Gretskey, p. 17.

25) S. T. Hunter(1996) *Central Asia since Independence*, Connecticut: Praeger, p. 99.

26) 이는 앞서 인용한 B. R. Rubin의 논문제목 자체이다.

타지키스탄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페르가나 계곡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예를 들어 'Adolat(Justice)', 'Islam Lashkarlari(Warriors of Islam)', 'Hizb at-tahrir al-ialami(Islam Liberation)'과 같은 원리주의 이슬람 집단들은 모두 페르가나를 근거지로 삼았다.²⁷⁾

이러한 이유로 우즈베키스탄의 대통령 카리모프는 타지키스탄 내전이 자국내 이슬람 반대세력에 미칠 영향을 근거로, 타지키스탄 내전에 대한 중앙아시아 국가를 포함한 CIS의 공동대응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타지키스탄 주둔 CIS 평화유지군에서 우즈베키스탄이 차지하는 비중이 러시아 다음이었다는 점을 이를 보여준다. 다른 한편으로 타지키스탄 내전은 그가 이슬람 정치집단을 포함한 모든 반대세력을 철저히 탄압하는 구실이 되었다. 실제로 우즈베키스탄 이슬람 원리주의 정치세력을 대표하는 IMU(Islamic Movement of Uzbekistan)는 다수의 우즈베크인과 타지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1992년에서 1993년 사이 그 근거지를 타지키스탄으로 옮겨 반군세력에 가담하여 내전에 참여하였고, 이 과정에서 IMU도 아프가니스탄의 원리주의 세력과 접촉하게 된다. 특히 IMU는 아프가니스탄의 무자헤딘 그룹뿐만 아니라 탈레반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었으며, 이들과의 접촉이 IMU의 정치적 급진성을 더 강화시키고 이들의 군사적 무장과 반군활동을 본격화한 것은 사실이다.²⁸⁾

그러나 실제로 IMU의 과격화를 불러일으킨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오히려 카리모프 대통령 자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Adolat나 Islam Lashkarlari와 같이 '평화적 수단'을 통한 이슬람 국가 건설을 주장했던 중도적 원리주의 그룹이 급진적인 IMU에 흡수된 것은 카리모프의 독재와 탄압에 대한 반작용이었고, IMU가 타지키스탄으로 근거지를 이동한 것도 카리모프의 강경탄압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1999년 IMU의 바트켄 테러 후 키르기즈스탄 정부는 카리모프의 지나친 탄압이 원리주의 집단의 과격화를 야기하였고, 그렇게 급진화된 원리주의가 유입되어 자국 무슬림들을 오염시킨다며 카리모프를 강하게 비난하였다. 이에 대해 카리모프는 타지키스탄이 IMU에 은신처를 제공하고

27) 우즈베키스탄의 이슬람 정치세력에 대해서는 B. Badadzhozov(2000) "The Fergana Valley: Source or Victim of Islamic Fundamentalism?" *Political Islam and Conflicts in Russia and Central Asia*(<http://www.ca-c.org/dataeng/10.babadzh.shtml> 검색일: 2004.03.17), pp. 6-8 참조.

28) IMU의 활동에 대해서는 S. T. Hunter(2001), pp. 1-2; S. E. Cornell & R. A. Spector(2002) "Central Asia: More than Islamic Extremists", *The Washington Quarterly* (Winter), pp. 193-199 참조.

물질적 지원을 했기 때문이라며 모든 비난을 타지키스탄에게 돌린다.²⁹⁾ 그러나 카리모프의 주장과 달리 중앙아시아에서 일국의 과격화된 이슬람 정치세력이 주변국에 빠르게 확장되고 이로 인해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의 갈등과 긴장이 유발되는 것은 타지키스탄 내전 때문이라기보다, 민족혼재 또는 그로 인한 민족갈등, 영토 분쟁 등 소비에트 지배의 결과 해당지역에 구조화된 모순 때문이다. 중앙아시아의 급진적 원리주의 세력이 이러한 모순이 집약된 곳, 즉 민족적 경계와 지리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국경인접지역³⁰⁾을 주된 근거지로 삼아, 이 지역의 소수민족을 종교적, 정치적 활동의 타겟으로 삼는 경우가 빈번한 것은 이 때문이다.

오히려 카리모프의 타지키스탄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의지는 이러한 구조적 모순의 해결보다는 그러한 모순의 유지를 통해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는 혐의가 더 짙으며, 여기에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새로운 강자로 군림하려는 카리모프의 정치적 야심이 큰 작용을 하였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실 카리모프의 이런 희망은 역사적 근거를 가지는 것으로, 우즈베키스탄의 수도인 타슈켄트는 제정 러시아 시대부터 소비에트 시기에 이르기까지 중앙아시아의 정치적, 행정적 중심이었고, 우즈백인들은 다른 중앙아시아 지역의 통치 엘리트로 군림해왔다.³¹⁾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소비에트 타지키스탄을 지배했던 후잔트의 우즈백인이다. 따라서 카리모프는 타지키스탄 내전의 출발부터 일관되게 후잔트 친공산집권 세력을 옹호해왔고, 타지키스탄 내의 우즈백인들, 그리고 친우즈백 성향의 타직인들이 후잔트 진영을 돕도록 만들었으며, 그들의 반군진압을 군사적, 물질적으로 지원하였다. 이슬람 원리주의에 대한 경계보다 우즈베키스탄의 기득권과 영향력 보존이 타지키스탄 내전 개입의 더 큰 원동력이었음을 입증해주는 것은 첫 번째로는 후잔트 진영의 승리를 위해 우즈베키스탄이 우즈백인인 아프가니스탄 무자헤딘 리더인 A. R. 도스탐(Dostam)과도 공조하였다는 사실, 두 번째로는 후잔트-쿨랍간의 확고한 동맹관계에도 불구하고 우즈베키스탄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지 않는 쿨랍 출신의 공산주의자인 라호모노프가 대통령이 된 이후로 이 정권과 일정 정도의

29) 바트켄 사태를 둘러싼 갈등에 대해서는 S. T. Hunter(2001), p. 2 참조.

30) 예를 들면 중앙아시아 이슬람 원리주의는 앞서 언급한 페르가나 계곡(우즈베키스탄-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의 접경지역)이나 오쉬(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의 접경지역) 지역 등에서 특히 번창하고 있다.

31) 우즈베키스탄의 역사적 지위에 대해서는 S. Gretskey, p. 17.

거리를 항상 유지하였다는 점, 세 번째로는 그 결과 카리모프와 타지키스탄 반군지도자 간의 비밀접촉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³²⁾

이렇게 타지키스탄에 대한 예전의 영향력을 보존하려는 우즈베키스탄의 시도는 내전 전 과정에 걸쳐 매우 주도면밀하게 실행되었고, 뿌리 깊은 역사적 의존관계와 내전이라는 불안정한 정치 상황, 그리고 타지키스탄 인구의 거의 1/4에 해당하는 거대한 우즈베크인 집단의 존재에 기반하여 이러한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도 말할 수 있다. 1994년 라흐모노프 타지키스탄 대통령은 “타지키스탄 외교정책의 일순위는 우즈베키스탄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³³⁾이라고 말했고, 이 정권의 국방부 장관을 맡은 것도, 카리모프에 의해 그 임명이 개인적으로 승인된 우즈베크인이었다.³⁴⁾

그러나 우즈베키스탄의 정치적 야심은 개혁세력을 필두로 한 타지키스탄 내부 정치세력의 강한 경계의 대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³⁵⁾ 중앙아시아 지역 패권을 둘러싼 러시아와의 긴장관계를 유발하였다.

우즈베키스탄과 달리 타지키스탄 내전 발생 초기 러시아의 입장은 중립과 불간섭이었다. 그러나 1992년 말경 이러한 입장은 극적으로 변화한다. 그 이유는 타지키스탄의 정세보다는 국내정치 흐름과 관련된 러시아 외교정책의 선회 때문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소연방 해체 직후 러시아는 대표적인 대서양주의자인 외무부 장관 코지레프의 주도 하에 강력한 친서방주의 외교정책을 펼쳤다. 따라서 이 시기 러시아는 구소련 구성 공화국들, 특히 아시아권 국가와의 관계에 보다 소극적이었고 CIS를 느슨한 연합체 정도로 상정하였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러시아 개혁에 대한 서구의 경제적 지원은 만족할만한 수준에 미치지 못했으며, 이러한 실망감 속에서 특히 동유럽이나, 발틱 3국으로 대표되는 옛 소련 구성공화국들의 친서구화 정책과 이들을 대상으로

32) 1995년 카리모프는 UTO의 핵심리더인 투라존-조다와 비밀리에 만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타지키스탄 정부는 카리모프가 타지키스탄의 미래를 불안정하게 만든다며 몹시 비난하였다. S. T. Hunter(1996), pp. 99-100 참조.

33) S. T. Hunter(1996), p. 97.

34) 이는 러시아계 우즈베크인인 Aleksandr Shishlyannikov를 말한다. B. R. Rubin(1994), p. 216 참조.

35)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타지키스탄 민족주의자 그룹에서 강한 호응을 얻은 이슈가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 부하라와 사마르칸트를 돌려받자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단지 영토반환의 문제만이 아니라 타지키스탄 고유의 페르시아 문화로의 회귀, 이란권 국가와의 관계 회복 등의 문제와 긴밀히 연관되는 것이다.

한 나토의 동진은 러시아에 커다란 위기감을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상황은 러시아 내의 정치적 불안정, 경제 사정의 악화와 더불어 친서구적 외교정책에 대한 비판과 근본적인 수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 비판은 유럽과 아시아를 이어주는 교량으로서의 러시아의 국제적 역할을 강조하는 유라시아주의자들과,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옛 소련의 권위와 힘의 회복을 주장하는 제국주의적 극우 민족주의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결국 1992년 중반 러시아 외교정책의 방향을 둘러싼 친서구주의자들과 그 반대세력간의 대논쟁의 결과, 구소련 영토, 즉 근외지역이 러시아에 가지는 중요성과 근외지역에서의 러시아의 특별한 역할과 책임감, 그리고 이를 위한 의미있는 구조로서의 CIS를 강조하는 유라시아주의적 외교정책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³⁶⁾ 타지키스탄 내전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이 중립과 불간섭에서 적극적인 개입과 중재노력으로 급선회한 것은 위와 같은 외교정책의 변화 때문이며, 그 결과 1992년 12월 타지키스탄에 대한 군사개입이 러시아 정부에 의해서 승인된다.

러시아의 타지키스탄 내전 개입을 정당화하는 표면적인 명분은 우즈베키스탄의 경우처럼 과격한 이슬람 원리주의의 영향력 차단과 그 위협으로부터 자국민의 보호이다. 이미 체첸이나 다게스탄과 갈등을 겪고 있는 러시아로서는 타지키스탄 내전의 결과가 자국 내 이슬람주의자들의 분리, 독립요구에 미칠 영향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더구나 러시아 연방 내 무슬림의 많은 수가 투르크계-예를 들어 불가 우랄 전역과 카프카즈 일부지역-라는 점에서 중앙아시아 이슬람에 큰 파급력을 가진 타지키스탄 이슬람 세력은 러시아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아울러 타지키스탄에는 그 인구의 11%에 해당하는 40만 러시아인이 살고 있다. 근외 지역 거주 러시아인의 보호는 러시아 외교정책 개념의 기본 조항 중 하나이며, 따라서 내전으로부터 이들의 보호는 내전 개

36) 외교정책의 유라시아주의적 전환은 1992년 말 채택된 「러시아 연방의 외교정책의 개념들」이란 문서에 반영되었고, 코지레프 역시 'CIS에서의 러시아의 특별한 역할과 책임감'과 '옛 소련공화국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연합(연방)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등 유라시아주의적 입장을 수용하기 시작한다. 이에 대해서는 S. Gretsky, pp. 1-5 참조. 러시아 외교정책 전반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G. E. Fuller(1994) "Russia and Central Asia: Federation or Fault Line?" *Central Asia and the World*, pp. 99-107; 문명식(1994), 「구소련지역의 민족분류와 러시아연방의 인근 외교」, 「러시아연구」, 제4권, 14-18쪽; 신범식 (2001) 「러시아의 근외정책과 독립국가연합」, 「현대러시아의 이해」, 퇴설당, 254-278쪽 참조.

입의 효과적인 명분이 되었다.

그러나 러시아의 타지키스탄 개입은 보다 근본적으로 유라시아주의적 러시아 외교정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구소련 지역에서의 러시아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지위와 영향력의 보존과 확대를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이때 러시아와 구소련 공화국들 간의 관계는 과거의 제국주의적 지배-피지배 관계가 아닌, 독립과 상호존중에 기반한 '새로운 연방(연합)적 형태'라고 주장되지만, 엘친이 "구소련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보증자로서의 러시아의 특별한 능력"³⁷⁾이나, "중앙아시아 국가를 보호해줄 수 있는 유일한 나라로서의 러시아와 그들의 새로운 연방(연합) 추구"³⁸⁾를 운위할 때, 이것이 과연 무엇으로부터의 보호이고, 누구를 위한 평화와 안정인지에 대해서는 언제나 논란의 여지가 있다. 타지키스탄 내전에서 러시아의 역할도 이 논란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논란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은, 스스로의 중립선언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절대로 내전 양 세력으로부터의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타지키스탄 내전 초기 러시아가 중립과 평화적 중재노력을 기울인데 반해³⁹⁾, 외교정책의 변화 후 러시아는 친정부세력 편에서 내전에 가담하였고, 이들에 대한 일방적인 군사적 지원이 내전을 격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반군세력에 러시아에 대한 강한 반감을 심어놓았다. 이것은 이후 프리마코프의 외무부 장관 취임 후 보다 적극적으로 행해진 러시아의 중재노력에도 불구하고, 반군 측이 평화의 보증인으로서의 러시아의 독점적 지위를 부정하게 만들었다.⁴⁰⁾ 이런 의미에서 "CIS가 종족분쟁에서 평화유지를 도울 수 있지만, 종족 갈등의 진압이 더 넓은 대중에 反한 비대중적 정권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공

37) G. E. Fuller(1994), p. 105.

38) B. R. Rubin(1994), p. 219.

39) 1991년 엘친은 임시수상이었던 Igor Gaidar를 듀산베로 보내 러시아 파견군대가 타지키스탄 갈등에 간섭하지 말 것을 명령하였다(S. Gretskey, p. 4). 1992년의 GNR이 러시아 사령관 자볼로트노이의 평화적 중재의 결과 탄생한 것이라는 사실은 2장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다.

40) 휴전협정과 평화조약을 이끌어낸 Intra-Tajik-talks에서 라흐모노프 정부 측과 UTO간의 이견이 가장 심각하였던 것이 바로 평화보증인으로서의 러시아의 독점적 지위에 대한 사항이었다. 러시아의 독점적 지위를 인정한 라흐모노프 측과 달리 UTO는 러시아군이 내전에서 중립을 지키지 않았기에 평화보증인으로서 이란과 파키스탄을 함께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S. Gretskey, p. 12 참조.

화국의 민주 세력은 CIS 메카니즘을 억압의 도구로 볼 것”이라는⁴¹⁾ G. E. Fuller의 경고는 타지키스탄 내전의 상황에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타지키스탄 내전 개입의 숨은 명분이 기득권 보호와 영향력 유지라는 점에서 러시아는 우즈베키스탄과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타지키스탄은 중앙아시아의 미래의 패권을 둘러싼 양국간의 경쟁과 대결의 무대가 된 셈이다. 예를 들어 쿨랍 출신의 라흐모노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우즈베키스탄의 지역적 야심이 타지키스탄 내전 개입의 주된 이유임을 간파한 러시아가, 우즈베키스탄과 혈맹관계인 후잔트인 대신, 우즈베키스탄과 아무런 연고가 없는 쿨랍인을 지원했기 때문이라고 하며, 실제 대선 승리 후 라흐모노프와 쿨랍 지지자들은 중앙과 지역정부의 요직에서 후잔트인과 타직-우즈베크인을 몰아내었다.⁴²⁾ 이에 우즈베키스탄은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과 함께 ‘중앙아시아 연합(Central Asian Union)’을 형성해, 러시아를 배제한 중앙아시아만의 타지키스탄 문제 해결을 시도하였다.⁴³⁾ 사실 양국의 타지키스탄 내전에의 개입 자체가 서로에 대한 견제의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 즉 러시아 입장에서는 중앙아시아 장악에 대한 야심을 가진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전략적 균형추로서 타지키스탄이 필요하였고, 우즈베키스탄의 경우는 러시아의 지배력이 중앙아시아에 새로이 고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타지키스탄 내전에 개입하고 그 해결을 주도해나가려 하였던 것이다. 나아가 우즈베키스탄의 강력한 친서구주의, 친미국적 외교정책은 서구의 경제적 시스템을 자국 경제 발전의 모델로 삼고 있다는 사실과 서구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을 활발하게 유도하고자 하는 목적에 일차적으로 기인하지만, 이와 동시에 중앙아시아 지역에서의 러시아의 패권에 대한 견제의 일환이기도 하다고 말할 수 있다.⁴⁴⁾

양국간의 경쟁관계가 타지키스탄 정치 구조에 미친 영향은 매우 컸으며, 주로 이것은 타지키스탄의 구조적 모순을 심화시키고 안정을 해치는 쪽으로 나아갔다. 1998년 11월 후잔트에서 일어난 반정부 소요는 이것의 가장 극단적이고 상징적인 예이다. 러시아와 라흐모노프 정권에 의해 CNR 대표구성에서

41) G. E. Fuller(1994), p. 105.

42) 이에 대해서는 S. Gretskey, pp. 17-19 참조.

43) 이에 대한 더 자세한 것은 S. Gretskey, pp. 17-19 참조.

44) 우즈베키스탄은 9.1 테러 이후 미군의 주둔을 허락한 최초의 중앙아시아 국가이다.

이에 대해서는 S. E. Cornell & R. A. Spector(2002), p. 201 참조.

제외된 후잔트 정치인 A. 압돌로조노프(Abdollojonov)가 일으킨 이 소요사태로 114명의 정부군과 220명의 반군이 숨지고 170명의 시민이 부상하였으며, 타지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정부를 중심으로 한 지역갈등의 골이 더 깊어졌다.⁴⁵⁾

VI.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타지키스탄의 정치 세력화된 이슬람은 내전은 물론 이후 타지키스탄의 정치구조 속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였고, 이것은 무엇보다 타지키스탄에 구조화된 모순과 이것이 야기한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대중의 광범위한 비판에 기반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약진에도 불구하고 과격한 원리주의 이론과 행동으로 그들은 한편으로는 대중적 지지를 상실하였고,⁴⁶⁾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주변국가의 내정간섭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여 오히려 기존의 사회적 모순을 심화시키고 새로운 지역적, 국제적 갈등을 야기하는 불안요소가 되었다. 더욱이 중앙아시아 모든 국가가 이슬람 국가가 아닌 세속국가로서의 정치 형태를 선택하였다는 사실, 중앙아시아인들이 소련의 지배 하에서도 이슬람을 지켜왔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무신론 교육의 영향으로 주변 이슬람국에 비해 종교 관념이 일정부분 약화되어 있다는 사실, 중앙아시아 이슬람의 주류를 형성하는 하나피파와 수피즘의 유연성과 리버럴리즘에 익숙한 대중에게 원리주의의 이론적 엄격성과 원칙성이 매우 이질적이라는 사실 등, 중앙아시아에 고유한 정치적, 종교적 환경은 해당지역 이슬람 원리주의 정치그룹에 변화와 현실적 적응능력을 요구한다.

그러나 타지키스탄 이슬람 집단이 대표하는 중앙아시아 이슬람 정치세력의 급진화와 과격화 자체가 다양한 차원에서 중첩된 사회적 모순의 결과라는 점에서 보다 근본적으로 이러한 모순을 지속적으로 재생산해내는 소비에트 지

45) 후잔트 반정부소요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G. Gleason(2001), p. 85 참조.

46) 이슬람 원리주의에 대한 대중들의 비판은 그들이 자행한 테러와 폭력사태 뿐만이 아니라, 이들이 마약밀매나 무기거래와 같은 조직적인 범죄와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에도 기인한다. 이에 대해서는 S. E. Cornell & R. A. Spector(2002), pp. 197-198; A. Matveeva, p. 6 참조.

배의 유산 — 즉 구조화된 경제적 의존관계와 이로 인한 경제적 취약성, 관행화된 독재적 정치시스템과 같은 — 을 청산하고, 중앙아시아 지역갈등의 근본모순을 해결해나가려는 시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할 때에만 이민족의 오랜 지배를 견디어내게 한 자아정체성의 근본요소이자 민족적 자존심의 본질이며, 사회적 삶을 구성하는 조직적 힘으로서의 이슬람의 위력은 긍정적인 발전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문명식(1994), 「구소련지역의 민족분규와 러시아연방의 인근외교」, 『러시아 연구』, 제4권, 271-303쪽.
- 문명식(1998) 「구소련지역과 러시아에서 이슬람의 문제」, 『슬라브연구』 14, 289-331쪽
- 신범식(2001) 「러시아의 근외정책과 독립국가연합」, 『현대러시아의 이해』, 퇴설당, 254-279쪽.
- 최한우(1997) 『중앙아시아학 입문』, 서울: 퍼내기.
- Badadzazov, B.(2000) "The Fergana Valley: Source or Victim of Islamic Fundamentalism?" *Political Islam and Conflicts in Russia and Central Asia* (<http://www.ca-c.org/dataeng/10.babadzh.shtml> 검색일: 2004.03.17).
- Bennigsen, A & Broxup, M.(1983), *The Islamic Threat to the Soviet State*, London & Canberra.
- Cornell, S. E. & Spector, R. A.(2002) "Central Asia: More than Islamic Extremists", *The Washington Quarterly* (Winter), pp. 193-206.
- Fierman, W.(1991) "The Soviet Transformation of Central Asia", *Soviet Central Asia: The Failed Transformation*, Boulder: Westview Press, pp. 11-35.
- Fuller, G. E.(1994) "Russia and Central Asia: Federation or Fault Line?" *Central Asia and the World*, pp. 94-129.
- Gleason, G(2001) "Why Russia Is In Tajikistan", *Comparative Strategy*, Taylor&Francis, pp. 77-89.
- Gretsky, S. "Russia's Policy toward Central Asia", *Central Asia and the Caucasus* (<http://www.ca-c.org/dataeng/GRETSKY.shtml> 검색일 : 2004.03.17).
- Hunter, S. T.(1996) *Central Asia since Independence*, Connecticut: Praeger.
- (2001) "Religion, Politics and Security in Central Asia", *SAIS Review* 21(2), pp. 65-90.
- Kasenoy, U.(1998) "Post-Soviet Modernization in Central Asia: Realities and Prospects", *Central Asia: The Challenge of Independence*, New York: M. E. Sharpe, pp. 28-53.

- Malashenko, A. V.(1994) "Islam and Politics in the Southern Zone of the Former USSR", *Central Asia and Transcaucasia: Ethnicity and Conflict*. Westport: Greenwood Press, pp. 109-126.
- Matveeva, A. "The Islamist Challenge in Post-Soviet Eurasia", *Central Asia and the Caucasus* (<http://www.ca-c.org/dataeng/04.matveeva.shtml> 검색일: 2002.11.12).
- Olcott, M. B.(1996) *Central Asia's New States*, Washington D. C.: US Institute of Peace Press.
- Olimova, S. "Political Islam and Conflict in Tajikistan", *Central Asia and the Caucasus* (<http://www.ca-c.org/dataeng/11.olimova.shtml> 검색일: 2004.03.17)
- Rashid, A.(1994) *The Resurgence of Central Asia*, London:Oxford Univ. Press.
- Rorlich, A.(1991) "Islam and Atheism:Dynamic Tension in Soviet Central Asia", *Soviet Central Asia*, Boulder: Westview Press, pp. 186-218.
- Rose, R.(2002) "How Muslims View Democracy:Evidence from Central Asia". *Journal of Democracy*, vol.3, No.4, pp. 102-111.
- Rubin, B. R.(1994) "Tajikistan: From Soviet Republic to Russian-Uzbek Protectorate", *Central Asia and the World*, New York: Council of Foreign Relations Press, pp. 207-224.
- Voll, J. O.(1994) "Central Asia as a Part of the Modern Islamic World", *Central Asia in Historical Perspective*, Boulder: Westview Press, pp. 62-81.

Резюме

**Политизация ислама в современной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Гражданская война в Таджикистане
и взаимоотношения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Узбекистаном**

Ли, Мун-Енг

Данная статья посвящена анализу явления политизации ислама в 5 независимых странах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путем исследования гражданской войны в Таджикистане. С этой целью в данной статье рассмотрены возникновение и процесс гражданской войны, проанализированы сущность и особенности политизации ислама в Таджикистане в связи с социальными проблемами и исламским фундаментализмом и освещены региональные и международные проблемы, которые вызывает политизация ислама в Таджикистане, главным образом, во взаимоотношениях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Узбекистаном.

Политический ислам в Таджикистане играл главную роль не только в гражданской войне, но и в сложившейся впоследствии политической структуре этой страны. Подобная ситуация тесно связана с имеющими долгую историю конфликтами и противоречиями, которые создал советский режим, с одной стороны, и с критическим осознанием этих проблем самим народом, с другой. Но несмотря на успешное развитие, политический ислам, с одной стороны, терял массовую поддержку, а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вызывал вмешательство соседних стран — именно России и Узбекистана, — что было связано с экстремистской идеологией исламского фундаментализма. Подобная ситуация привела к углублению имеющихся социальных противоречий, а также к возникновению нового очага нестабильности, ведущего к регионально-международному конфликту.

Однако, все-таки можно сказать, что сама радикализация политического ислама 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является результатом разных исторических про-

тиворечий и конфликтов, поэтому прежде всего необходима ликвидация негативных наследий советского правления, которое продолжает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воспроизведению социальных проблем, что позволит разрешить основные региональные противоречия 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Именно при таком условии сила ислама, которая является существенным элементом национальной самоидентификации народо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сможет играть позитивную роль в развитии Таджикистана и всей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논문심사일정

논문투고일:	2004. 3. 10
논문심사일:	2004. 3. 18~2004. 4. 16
심사완료일:	2004. 4. 22